

# 밤새 오체투지 “참회 했어요”

이 모 저 모

### “이젠 뉘든 잘할수 있어요”

#### 광동여고 10명 단체참가



○...참회당 3층 맨 앞쪽에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으로 자리잡은 여고생 10명. 주위 사람들의 격려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이들은 광동여고 재학생들이다. 이 학교 이학승(선재 청소년 연구원)교범사의 권유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이들은 준비 소리에 맞춰 일초의 오차도 없이 절했다.

3천배를 마친 새벽 “절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중단하고 싶은 몇 번의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니 뿌듯하다”며 “이젠 무슨 일이든 다 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가족 건강기원 뿌듯해요”

##### 父情佛心

○...서울 창동에 사는 이원웅(55)거사는 부인 이옥희(46)씨와 셋째 딸 소희(18)양과 함께 삼천배 입재식에 참석했다. 부인과 여고 2년생인 딸은 108배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이원웅씨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해 3천배를 마쳐 부정부심(父情佛心)을 보여줬다. 그는 “대학 1년생인 선희(20)양으로부터 초등학교 6년생인 경래(14)군 등 4녀1남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고 3천배를 회향한 소감을 말했다.

#### 세살 아기도 불사 지켜봐



##### 산교육장

○...신상수(40) 김성남(34)씨부부(서울 진등동)는 쌀쌀한 날씨에도 딸 신규민(12) 율우(8)와 아들 지훈(3)군 등 3형제를 데려와 3천배 하는 광경을 지켜보게 됐다. 김보살은 “애들에게 불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데려왔다”면서 “애들이 자라 훌륭한 불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3천배 정진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엄마 말에 따라 안정하게 절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이날 산-김씨 부부는 참회당 3층강당에서 자녀들을 동반해 번갈아 가며 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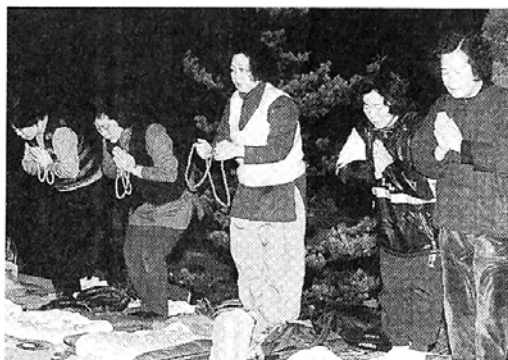
### 현대불교·도선사 공동주최 ‘3000배 정진’ 현장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1일 저녁 서울 우이동 도봉산 중턱에 자리잡은 참회도당 도선사에는 온 마음들이 하나로 돌아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이 창간 3주년을 맞아 도선사(주지 동광)와 함께 ‘참회하는 삶을 살자’의 실천행사로 마련한 ‘바람(願) 정진(力) 3천배 기도 대법회’ 현정이다.

낮 12시부터 하나둘씩 모여든 불자들이 3천배가 시작된 7시에는 도선사 석불전과 대웅전, 명부전, 참회당, 삼성각 등 전도당을 발디뎠음도 없이



◇화목·건강·국가안녕을 바라는 마음들이 열불소리에 실려 온 누리에 퍼졌다.

조금전 휴식시간에 먹은 팔죽 한그릇이 불자들의 기운을 북돋운 듯 하다. 자! 이제 3천배가 다 되어간다는 마음에 힘도 줄도 지칠 줄도 모르는 불자들의 신심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마에 흠이 생기도록 몸과 마음을 단져 평생동안 오체투지 참회정진을 했다는 광복스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어느덧 진실한 참회의 마음으로 온몸은 땀으로 젖고 자신속의 부처님을 향한 회열의 열기도 점점 최고조를 향해 갔다.

새벽 3시40분, 드디어 열불소리와 죽비소리가 모두 멈췄다. 3천배가 끝난 것이다. 그러나 보살들은 끊임없이 절을 하고 또 절을 한다. 새벽이 깊은 산지락 사이로 고개를 들고 불자들의 마음속에도 계절을 향한 여정이 비추는 순간, 밤새워 3천배를 올린 불자들은 느꼈다. ‘이제 어제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은자 기자

### 남녀노소 2천여 불심 山寺 달귀 “어제의 나 버리고 새 삶 살아야지”

꼭 채우고도 넘쳐 2천여명에 이르렀다. 자리를 잡지 못한 불자들은 석불전 통로와 입구, 대웅전 앞마당, 명부전 앞뜰, 방석을 깔고 절을 할 수 있을 만한 곳곳에 모여 앉아 때이른 추위도 아랑곳 않음에 몸과 마음을 단져 오체투지 3천배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3천배가 시작되기 전인 오후 4시, 석불전 입재식에서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은 “정치 경제적으로 어지러운 현실에서 3천배 참회기도는 참으로 뜻깊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조계종 포교원장 상타스님도 “참회하는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고 새 삶을 이룩하자”고 격려했다.

3천배 기도가 시작된 오후 7시,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불자들의 열불

소리와 절하는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45분 절하고 15분 휴식. 또 다시 거듭되는 절과 포행으로 불자들이 무아의 세계로 뛰어 들었다. 부모님의 건강을 비는 이, 탐진치를 벗겨 해탈하는 이, 자녀의 대학합격을 기원하는 이, 가족의 화목과 자신의 발전을 서원하는 이, 경제회복과 통일을 기원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참석한 불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바람도 108번 뇌 만공이나 수 없이 많다. 이런 지극한 불자들의 바람을 알고계시는 듯 대웅전 아미타부처님도 석불전 마애 관세음보살님도 미소로 화답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불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끊임없이 머리를 조아린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유유죽공양을 받고 깨달음을 이룬 것처럼



◇참회기도도량으로 굽히는 도선사 석불전 2천여 불자들은 지극한 참회불심 3천배 철야정진을 했다.

## 만화 100부작 1부 1화 이향원

**비단으로 쓴 낙타가족**

옛날 어떤 장사꾼이 여러 가지 보물과 값고 부드러운 비단을 싣고 장사하러 다니던 중 낙타가 죽어버렸다. 상인은 곧 죽은 낙타의 가족을 벗기고 하인에게 말했다.

“그 낙타가족을 잘 간수하여 찾거나 썩지 않게 하여라. 에 명심하겠 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비가 쏟아졌다. “앗! 비가 온다. 낙타가족이 비약하면 썩을 지도 몰라.”

큰일났다. 비를 피해 들 곳도 없는데 걱정 없어.

이 비단으로 낙타가족을 덮어 두면 되잖아. 그렇구나.

어리석은 두 하인은 비단으로 낙타가족을 덮어 보호했다.

그로인해 비단은 모두 못쓰게 되어 버렸다.

아니! 이게 무슨 것이야.

주인님께서 낙타가족을 잘 간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아무리 낙타가족을 잘 간수 하한다고 어느것이 더 귀한 것인지도 모른다 말이나?

계울을 덮어 살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단에 비유한 것이고.

낙타의 가족은 재물에 비유한 것.

세상 사람들도 이와같이 재물로 온갖 탐을 찾아 공양하면서.

계울을 덮고 선혈을 베풀 생각은 않는다.

마치 낙타가족을 비단으로 덮어 근본을 잃고 끝을 취하는 어리석은 하인들 처럼.

### 여성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래엔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멧갈이 잡고 탁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 있다. ( )
- 18. 당뇨와갑상선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대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림형(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유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항요법 항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항비**를 사용해 보세요!

항비를 사용한 체형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제법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사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 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오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할색이 잘드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 시 한번 항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불순 등 고민하는 분들께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항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 조각 바다위로  
홍로 떠가는 부류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낚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수놓은 바람 맞는다

원장 이영숙(본명)

대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한명,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02)634-4910~2  
(011)288-4910

###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유혼합원사·건강防災服

건강防災服  
점염유지  
음의인발생  
99.9% 54.8PPM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포로 온몸을 꼭 감싸 주는 것입니다.

옥이불과 함께 비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  
입니다.
- Kirlan + BIO = 건강신물진

이 옷을 입으면 중국 황제 유송의  
수레표처럼 인은 것과 같은  
명리입니다. (남·여·노·소)

중국 허베이성 춘천시에서 송토된  
원초시대 옥의 수레표석 신물진  
으로 만든 2천 498개의 옥조각과  
1천 100g의 금을 섞어  
2000년에 죽은 명의 사제역 피  
무기 단적이 있었다.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어온 고대 중국의 신장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용지로 2가 50번지  
(브레방 백화점 지하상가 용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舍  
777-0105 (후편번역가)